이헌승 정각회장 취임…“선명상 보급 앞장”

9월 2일 취임법회 … 역대 최다 55명 가입
진우 스님 “국민 평안이란 목표 잊지 말길”
“부처님 가르침 대로 국민 국가 위해 봉사”



제22대 국회정각회가 개원 및 이헌승 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발전을 위한 입법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22대 국회정각회장으로 취임한 이헌승 회장이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 국회정각회도 선명상 보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국회정각회는 9월 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2대 국회정각회 개원 및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 입법가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선명상 실천을 약속하기도 한 이헌승 회장은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시심마’ 즉 ‘이뭐꼬’라고 쓰여진 액자를 걸어 놓고 스스로에게 되물어 생각을 전환하고 짧게나마 명상을 하려고 노력한다”면서 “선명상이야 말로 ‘이뭐꼬’를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나와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이뭐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체 만물이 하나라는 인식이 생겨 욕심, 화냄, 어리석음의 탐진치 대신 타인에 대한 자비심과 관용이 싹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락아정의 부처님 가르침을 새겨 국회정각회 역시 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 다스리기를 강조하고 “편안함과 물질적 욕망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항상 바른 마음으로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상을 강조한 스님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화합과 협력의 정치를 펼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이념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가진 목표는 국민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이 사회적으로 회향될 수 있도록 정각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계각층에서 축사도 이어졌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국내외 정세가 격변하는 시기인만큼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가 솔선수범해 갈등과 반목 대신 상생과 공존의 정치를 앞장서 주길 기원한다”면서 “22대 국회 정각회가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정치를 통해 인간이 존중받는 위민국가 건설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국회정각회에게 평화와 화합이라는 불교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며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주경 스님은 “불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깊이 새겨야 한다”며 “정각회장을 중심으로 소속 국회의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불교를 넘어 국민과 함께해 나가길 기대한다. 회장의 신심과 열정이 모든 의원들에게 귀감이 돼 국회정각회가 앞으로도 더 큰 기여를 할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은 55명 가입으로 최다 회원을 기록한 22대 정각회에 큰 기대감을 표하고 “당 지도부가 정한 사안에 대해 정각회가 끌려갈 게 아니라 정각회가 정하면 양당 지도부가 따라올 수 있게 하고, 불교 정책 또한 정부 결정에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각회가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각회원들은 전진숙 정각회 간사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에서 “불자 국회의원들은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불교의 외부 입법 수호자가 되겠다”면서 “사심 없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삶이 수행이고 생활이 참선인 정진을 하겠다. 여야 구분 없이 화합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발원했다.

“불교도대법회 원만개최 기원합니다”

통도사·표충사·전국비구니회 등
불교계 마음모아 기금전달 잇달아





서울 도선사(사진 왼쪽)와 속초 신흥사(사진 오른쪽)가 ‘2024 불교도대법회’의 여법한 봉행을 기원하며 성금을 기탁했다.

‘2024 불교도대법회’의 여법한 봉행을 기원하는 불교계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와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는 9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도 기금 2천만원을 전달하며 종단의 역사적인 불사에 참여했다.

9월 3일에는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와 서울 호국지장사(주지 도호 스님)도 기금 각 1억원과 1000만원을 쾌척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2024 불교도대법회의 원만 개최를 기원하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도선사 대중뿐만 아니라 청담학교와 복지법인 혜명 임직원들의 동참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와 양양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는 9월 4일 각각 1억원의 성금을 희사했다.

진우 스님은 “불자들이 2024 불교도대법회에 참석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이번 불교도대법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한 신뢰를 심고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 조직개편 특별보좌관에 만당 스님

진우 스님, 9월 4일 임명장 수여
만당 스님 “개편 이루도록 노력”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논의를 위한 중앙종회 임시회가 9월 10일 개원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만당 스님을 조직개편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만당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조직개편 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당부하며 “중앙종회 종단 미래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조직개편을 다뤄 결론 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종회의원들에게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조직개편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만당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임은호 기자

선명상 영상으로 마음 돌보세요

미래본부 ‘내 마음 봄’ 영상 공개
주호영·이현세 등 95명 명상방법

2024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을 앞두고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가 일상에서 선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 ‘내 마음 봄’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 콘텐츠 ‘내 마음 봄’은 MZ세대 대학생부터 주호영 국회의원, 이현세 만화가, 이창재 영화감독, 임형남 건축가 등 다양한 연령층과 전문 직업군의 사람들 총 95명이 참여했다. 선명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명상 장소와 명상법 등을 소개한다.

유튜브 채널 ‘선명상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이는 3분 내외며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쇼츠)로도 편집돼 매일 2~3편 공개될 예정이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 종료 이후에도 다양한 명상 관련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원각 대종사 “방장·주지 동반 사퇴하자”

8월 31일 발표 입장문서 밝혀
“화합 분위기서 산중총회 진행”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가 자신과 주지의 동반 사퇴를 제안했다.

원각 대종사는 8월 31일 발표한 ‘해인총림의 안정과 여법한 산중총회를 위한 입장’에서 “최고의 수행 도량인 해인총림이 내분에 휩싸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음은 본 산승의 허물이자 부덕함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참회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지금 방장으로서 책임은 해인사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있음”을 밝힌 원각 대종사는 “본인과 본인이 추천한 주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시에 사퇴해서 새로운 기운으로 산중총회에 임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그리하여 화합의 분위기에서 산중총회를 진행하고 새로운 방장스님이 주지를 추천해서 여법하고 안정적인 사중 소임을 구성해달라”고 독려했다.

원각 대종사는 총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원각 대종사는 “본 산승과 주지가 사퇴하면 종헌과 종법에 의거하여 총림 대중의 의견을 들어서 과도기의 집행부를 잘 구성하게 도와서 산중총회를 원만히 치르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2024 제9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독일 종교학자 만프레드 후터 교수의 기조강연과
다양한 학문분야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활발한 학술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10.5(토) 10시~17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주최: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YouTube 한마음선원 공식채널 생중계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은 한마음과학원 사이트 (https://hans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미래사회, 과학 그리고 마음
● 기조강연: 대행선사의 한마음 천수(千手) 지혜와 실천
만프레트 후터(본 대학교 교수, 독일)
● 대행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어려움 고찰 및 해법 모색– 한마음선원 신도 설문을 중심으로–
발표: 유정오(이반성초등학교 교사), 진복선(한마음과학원 회원), 허기준(전남대학교 교수)
●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론 기반 상담자를 위한 관법 프로그램 개발: ‘지혜로운 마음’을 중심으로
발표: 최명희(경북대학교 강사)
● 대행선사의 ‘실천수행론’에 대한 마음치유 연구: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발표: 이광숙(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미래교육원 책임교수)
● 보시를 통해 본 물질과 마음의 관계: 대행선사와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보시행을 중심으로
발표: 박소진(신한대학교 교수)
● 마음챙김과 대행선사: 대학생에게 마음챙김 기반 명상을 가르친 사례 연구 발표: 글렌 최(세네카 폴리테크닉 교수, 캐나다)